

# 위험물질 산재 폐차장 소방안전 '사각지대'

### 인화·폭발성 물질 많은데 화재 대응시설은 미흡 현행 소방법 현실 감안않고 건축물 규모만 따져 폐차장 화재 취약하지만 소방법 적용대상서 제외

폐기물, 폐부품 등 오염·위험 물질이 산적한 폐차장이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6일 제주시에 한 폐차장.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이 아직 내부에 남아 있는 차량들이 탐처럼 층층이 쌓아올려져 있다. 오일이 묻은

자동차 폐부품도 곳곳에 널려 있다. 폐차장 내부 바닥은 기름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3300여㎡ 규모의 이 폐차장에만 250여대의 차량이 보관돼 있다. 반면 불이 날 경우 대비하기 위한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몇 대와 비상경보설비가 전부였다. 또 폐차장 입구 양 옆으로도 폐차들이 쌓여있어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

방법에 따른 폐차장 안전 점검 등은 시설 내 사무실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폐차장이 적재된 야적지는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폐차장은 기름을 저장·제조·취급하는 '위험물안전관리' 시설이 아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폐차에는 휘발유, 엔진오일 등 가연성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방법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설 규모만 따지고 있다. 소방법상 연면적 400㎡ 기준 이상일 때 소화기 1대·비상경보설비 1대만을 비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폐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도 폐차장이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폐차장 특성상 유류와 타이어, 용접 작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수질·토양오염, 인근 악취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차장은 기름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은 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혜기자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돌고래의 모습이 국립수산물학원에 의해 포착됐다.

## 죽은 새끼 업고다니 돌고래 '몽클'

### 국립수산물학원 포착 전문가 "어미 애착 행동"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수중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 11일 제주시 구좌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를 관찰하던 중,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행동을 촬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촬영 당시 어미 돌고래는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올리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됐다.

태어난 직후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돌고래의 사체는 꼬리 지느러미와 꼬리자루를 제외하고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떨어지면 다시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

김현우 박사는 "죽은 새끼의 크기나 상태를 고려할 때 어미 돌고래가 2주 이상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돌고래 무리 근처에서 보트를 타고 이 모습을 관찰하던 연구진은 약 5분간 어미의 행동을 촬영했으며, 돌고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한동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특이 행동이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무리에서도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한 차례씩 관찰된 바 있다.

과학자들은 죽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애착 행동은 무리의 개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동의 일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최완현 국립수산물학원장은 "제주 연안에서는 돌고래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돌고래 무리를 만나면 다가가기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해수욕장. 분위기는 이미 개장 해수욕장 개장을 나온 앞둔 27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타운하우스 등 매입시 개발부담금 확인을"

### 도 "준공 전 물건 양도시 양수인에게 납부의무 승계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이다.

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일 때

개발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589건에 대한 6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

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해당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줘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해 도민들이 토지 매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 돌고래 무리 위험·운항 제트보트 '눈살'

### 해경, 관련 업체 계도조치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상에 출몰한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제트보트를 운항한 사업장 측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를 제트보트가

근거리에서 뒤쫓아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고 접수한 제주해경은 이날 오후 해당 업체를 찾아 돌고래 무리를 피해 레저보트를 운항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이나 레저보트가 돌고래 주변을 운항하면 돌고래 무리 중 일부 개체가 (배에 부딪혀)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 운항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웃음으로 맞이하고 친절로 봉사하는

# 함덕 서우봉해수욕장

개장고사 6월 30일(화) 오후 5시

전국 최고의 해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푸른 파도가 손짓하는 성하의 계절!  
은백의 고운 백사장 서우봉 오름과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함덕서우봉해변이 다음과 같이 개장됨을 알려드리우고, 수려한 경관속에 맑고 깨끗한 물살을 가르며 울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최적의 피서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만여평의 도내 최대의 금모래 백사장
- 2천대가 동시에 주차 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
- 아영객을 위한 드넓은 아영장
-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탈의 샤워장
- 완벽한 전문 119구조대와 간이 진료소
- 도내 최고의 통합관리센터 운영

함덕리장 한 명용

- 1구장 김성근 ■ 2구장 이승택 ■ 3구장 오영철
- 4구장 한웅진 ■ 5구장 이정규 외 리민일동

위치 제주시에서 동쪽 14km 문의전화 ☎783-8119, 783-8014

www.hamdeok.co.kr

# 7월 1일 (수요일) 개장

시원한 여름을 함덕서우봉해변과 함께...

개장 시간  
7월01일~7월14일, 8월16일~8월31일 10:00~19:00  
7월15일~8월15일 10:00~20:00

함덕비치플리마켓 운영(카페델문도 입구)  
7월01일~8월31일